

제언

글로벌기술사로서의 영어구사 전략

A Strategy to Command a Good English as a Global Professional Engineer



글 | 車 淳 哲
(Char, Soon Chul)

공학박사, 국제기술사(화공, 소방, 유류),
화공·화공안전·소방·가스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KOSHA18001 심사원, 한국기술사회 이사,
홍보위원, 국제협력위원, 제도개선위원,
한국화공안전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가스학회 국제협력이사, 한국화재소방학회 이사,
기술사사무소 차스텍이앤씨(주) 대표,
E-mail : sc@charstech.com

1. 영어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우리가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생활하는 중에 영어를 빼 놓고는 이미 고립된 환경에 처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의 기술자료의 해석 및 실무적용, 기술교류, 기술협상 및 계약, 각종 기술코드의 실무, 엔지니어링 등 그 필요성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외국인으로서, 우랄알타이어계의 한국인으로서, OECD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기술사로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교역이나 협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영어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며 야무지게 구사할 것인가?

2. 입체적인 개념으로 영어구사하기

우선 영어는 읽기, 이해하기, 듣기, 말하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읽고 이해하기는 소위 독해력으로서 오래 전부터의 교습방식 영어인데, 중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쓰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듣기와 말하기인데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음은 명확한데 사실 영어구사는 영국식, 미국식, 인도식, 호주식, 한국식, 일본식, 태국식 등에도다 각 국가 및 지역마다 다를 뿐 아니라 또한 개인 간에도 말하기 습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만만치 않다. 말하기의 경우에도 우리가 영어 전공학도를 제외하고는 영어 음성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므로 원어민과 같은 발음과 음성과 억양으로 구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토익 성적이 높다고 하여 총체적인 영어실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달라 어려운 언어이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모국어가가 아니므로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랄 알타이어계인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나무랄 것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어를 원어민과 동일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원어민 영어를 구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예술, 체육 등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몸에 붙어야 하는데, 이는 이민 2세대도 불충분하고 이민 3세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므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영어를 좀 더 잘 구사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쉽고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는 전략적인 성공적 요소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이미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서 모국어인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술적인 핵심요소를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필자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체로 중학교에 입학해서 알파벳부터 공부하여 무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접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잘 구사한다고 말 할 수는 없으되 그렇다고 능숙하

지 않다고 말 하지 않는다. 필자의 약 30개국 해외경험을 토대로 하여 통상적으로 예비고사나 수능시험의 수준이라면 우리는 이미 영어를 충분히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동의 산유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인 제3국인들 중 일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면서도 직장에서 적응하면서 원만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즉, 어렵지도 않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변호사가 현지인이 보기에는 영어 표현력이 어눌하지만 정확한 논리와 논거로 변호하여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우도 보았고, 세계 굴지의 미국과 중동의 엔지니어링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수 없이 보아 왔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체로 영어를 잘 구사하고는 있으나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유창한 영어 구사를 위하여 자신이 듣기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자신이 말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말하면 되는 것이다. 즉, 대화 시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말 할 경우에 문법과 어법에 맞게 잘 구사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냥 머리 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어를 무의식적으로 말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You just speak and express what you have in mind!를 권장하고 싶다. 어차피 원어민은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TV의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대화하지만 우리가 한 수 접고 이해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영어를 잉글리시가 아닌 잉글리쉬로 발음할 수 있고 처치가 아닌 처취로 발음할 수 있다. 또한 exactly도 이그잭틀리가 아닌 이그재클리로 발음할 수 있으며 actual도 액츄얼이 아닌 액슈얼임을 깨달을 수 있다. 태국인들은 How much?를 하우 머취?로 발음하지 않고 하우마?로 발음하기도 한다. 한편, 인도인들은 air compressor를 에어 컴프레써로 발음하지 않고 아이르 컴프레싸르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태리인들은 hotel을 호텔이 아니라 오텔로 발음한다. 어차피 우리는 r과 l을 그리고 f와 v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혀의 위치에 따라 달리 발음하는 "어"의 발음을 정확히 구사하기 어려우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충분히 구사하였으면 하는 전략이다.

다섯 번째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영어 단어의 대부분은 동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체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sult, outcome, effect, consequence의 경우에 결

과 혹은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개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필자는 사전에 동의어라고 하여도 동의하지 않는다. 중학교 때 배웠던 Frankly speaking to you, ...도 "사실대로 말해서 또는 솔직히 말해서"로 알고 있었는데 체험을 통해 "(평소에는 거짓말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번의 경우만은) 사실대로 말해서 또는 솔직히 말해서"라는 어의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각 문장과 생활에서 사용하고 생동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가 실제의 의미이며 사전적인 어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envisage라는 단어는 expect, presume와 동의어 혹은 유사어라고 할 수 있는데, envisage는 구어체로는 사용하지 않고 문어체로서만 사용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분할 것을 유념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좀 더 영어를 쉽고 자유롭게 잘 구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저널을 구독하더라도 애정어린 관심(affinity) 혹은 주목(attention) 혹은 경계(alert)를 가져야 함을 권장하고 싶고 아울러 연애소설이건 저널이건 사설이건 매일 10분 이상의 정성(practice)을 기울인다면 현재보다는 더욱 우수하게 구사함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술사로서 활동함에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싶다.

(원고접수일 2009년 4월 22일)